

우정관계의 진전에 따른 행동적 사건의 변화

韓 德 雄

성균관대학교 산업심리학과

대인관계의 진전과정에 관해서 지금까지 제안된 이론이나 실증적 연구결과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대인관계의 진전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틀이 제안되었다. 선행연구들에서 대인매력이나 정보소통 등의 한 두 단면만을 선택적으로 강조한데 따르는 제한점들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대인매력, 행동적 사건, 개인의 욕구, 여러 태도들, 정서적 경험, 현 상태의 추론이나 평가, 장래에 관한 예전을 포함하는 인지, 그리고 상황적 단면들 각각의 특징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 수준에서 요구됨을 강조했다. 그리고 일정한 시점에서 여러 단면들의 상호관련성, 공변성, 및 인과성을 다룰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또한, 대인관계가 진전되는 시간적 경과에 따라서 여러 단면들의 상대적 중요성이나 상호관련성이 변화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여러 단면들 각각이나 상호관련성이 변화되는 양상은 시점들을 연결시켜서 다룰 수 있다고 보았다.

기본적 수준에서 각 단면별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는데, 이러한 목적에서 71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정관계가 형성되고 진전되는 14개월 동안에 발생된 행동적 사건들을 세 시점에서 분석했다. 여러 대인관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대인행동의 발생이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발생백분율과 행동 차원별로 반복해서 분석했다. 70개 행동적 사건들 가운데 32개 행동들에서 친교 시점이 경과할수록 유의하게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우정형성 1개월 경에 50% 이상의 높은 발생률을 보인 행동적 사건들은 친밀을 촉진시키는 내용이었는데, 친교 7개월 및 14개월 경에는 매우 친밀한 관계에서만 볼 수 있는 소수의 행동만이 추가되었다. 행동 차원별 분석에서 3차원의 양극 요인들 가운데 지배의 의미가 강한 손윗사람으로서의 행동에서만 시점에 따른 행동 증가가 유의하지 않았다. 우정관계의 긴밀성을 해칠 수 있는 분리행동이나 적대적 행동들도 시간 경과에 따라서 증가되었는데, 현상은 우정관계의 친밀성을 촉진시키는 결합행동이나 애정행동들이 상대적으로 크게 촉진되면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우정관계의 진전 과정이 정태적이지 아니라 갈등과 이의 해결이 진행되는 역동적 과정임을 나타내는 단서로서 해석된다. 또한, 여성의 우정관계에서는 정서적 기복이 크거나 전통적으로 여성 성역할 행동으로 여겨지는 행동적 사건의 발생이 남성의 우정관계에서 보다 높았다.

이 글은 각각 독립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친밀한 대인관계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이해의 틀을 제시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이 이해의 틀을 우정관계의 진전과정에 적용하여 그 가운데 특수한 단면인 행동적 사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일이다.

서론 부분에서 대인관계의 진전과정에 관한 이해의 틀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대인매력만이 아니라 여러 태도, 욕구, 행동, 정서, 인지 및 상황 등의 단면들을 함께 관련지를 필요성과 종단적 연구가 요구되는 근거를 다른 학자들의 견해나 연구 결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우정관계의 진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행동적 사건을 분석하기 위한 행동모형의 수립과정과 이 모형을 적용한 다른 연구를 살펴 본 후에, 본 연구의 행동적 사건의 분석과 필자(1985)의 선행연구와의 관련성에 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대인관계의 진전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틀

대인매력 분야에서 친밀한 대인관계로 진전되는 과정에서 매력을 문제삼거나 이미 친밀한 대인관계가 형성된 후의 매력을 다룬 연구는 최근까지 매우 드물다. 또한, 최근에 친밀한 대인관계의 연구가 다루어지기 시작했으나 이를 다룬 연구들을 보면 지금까지 대인매력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져온 가정, 방향이 잘못 잡혔거나 지나치게 단순화된 가정들이 비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이 초래된 사적 배경은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참조: 한 덕웅, 1985, pp.60-62), 친밀한 대인관계로의 진전과정을 이해하는 틀을 제시한다는 목적에서나 대인관계의 진전과정에서 대인매력이 차지하는 위치를 정위짓는다는 목적에서, 매력의 개념설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제한점을 비판하는 형식으로 문제점을 개진하고자 한다.

대인매력을 정의할 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잘못된 여러 가정 가운데 하나 이상을 함축적으로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매력을 정의할 때 여러 유형의 대인관계(예, 우정 혹은 애정)에서 매력의 성질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거나 경시함으로써 대인관계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는 대인매력의 독특성보다 공통적 요소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러한 가정 때문에 관심이 대인매력의 공통적 기반으로서 안정적 평가경향으로 정의되는 태도적 측면의 좁은 범위로 한정되었다.

둘째, 대인매력이 여러 구성요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본 경우에도 요소들간의 질적 차이가 경시되었다. 또한, 매력의 불안정하고 기복이 심한 정서적 측면, 행동적 측면 및 인지적 측면들과 항상 일관되거나, 성질상 동일한

내용에 대한 다른 명칭이거나, 혹은 매력의 하위구조라고 가정했다. 매력의 구성요소들이 일관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면, 여러 측면들을 구분해서 독립적으로 다루거나, 혹은 여러 측면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소홀히 다루기 쉽다.

세째, 매력 수준과 대인관계의 친밀도를 동일한 성질로 보거나, 인과적 관계를 이룬다고 보거나, 공변한다고 가정했다. 이 가정에 근거해서 대인매력을 대인관계 진전의 지표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해서 대인매력을 최종 종속변인으로만 보려는 연구가 많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가정과는 달리, 친밀도 수준이 달라짐에 따라서 매력도가 공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매력이 친밀도 수준을 결정짓는데 미치는 영향도 대인관계의 성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이론이나 연구결과가 보고되기도 했다(Thibaut & Kelley, 1959; Eidelson, 1980; 한덕웅, 1985). 그러므로 특정 조건에서는 친밀한 대인관계로의 진전에서 매력에 미치는 영향이, 흔히 가정하고 있는 것보다 작을 수도 있다.

비록 선택적으로 대인매력에 관련된 세 가정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았지만, 이 비판만을 보더라도 대인관계의 성질을 고려하여 친밀한 대인관계로 진전되는 과정을 이해하려면 평가적 성향으로 다루어져온 매력의 태도적 측면 이외에도 정서적 측면 및 행동적 측면의 기복이나 질적 복잡성, 상호 전달되는 정보내용, 대인관계 자체에 대한 사고를 포함하는 인지적 측면 등이 함께 관련 지워져야함을 시사 받을 수 있다.

넓은 의미의 대인매력 연구에서 대인관계의 진전과정을 다룬 학자들 가운데 태도로서의 대인매력 이외에 행동적 측면에 관심을 경주할 필요성을 강조한 학자도 있다. 이들은 대인매력 영역에 대인관계의 발전이라는 시간적 관점을 도입함과 아울러 대인매력이 태도적 차원에 한정되게 개념화되어서는 안됨을 지적한 점에서 주목받을만 하다. 이 가운데 Levinger와 Snoeck(1972; Levinger, 1974)나 Altman과 Taylor(1973)의 이론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Levinger(1974, p.100; 1978)는 대인매력을 문제삼으면서 대인관계의 깊이와 맥락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점에 착안했다. 그는 대인관계의 깊이와 맥락에 의해서 특징지어지는 타인과의 상호관련성이 친교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피상적 관계에서부터 깊은 관계까지 세 수준으로 구분된다고 주장했다. 세 수준이란, 차례대로 (1)일방적이며 피상적인 대인관계, (2)양자간의 표면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관계, (3)독자적 인간으로서 서로 함께 지낸 과거의 경험과 아울러 앞으로 당면할 미래에 대한 예견까지 모두 형성되는 상호관계를 말한다. 최근(Levinger, 1983, pp.315-359)에는 관계의 형성과 진전 뿐만 아니라 퇴화와 종결에 이르는 변화 단계를 포함하여, (1)양자가 서로 만나서 사귀기 시작하는 숙지와 친숙 단계, (2)양자관계의 상호촉진적 요소와 간섭, 양자간의 즐거움 및 문제점들의 탐색이 점차 확대되고 지속되는 관계의 형성 단계, (3)

양자간에 오랜 기간에 걸친 상호개입으로 지속성이 성립되어 대인관계가 지속되고 옹고되는 단계, (4) 상호관련성이 퇴화되고 붕괴되는 단계, 및 (5) 사별이나 결별을 통해서 관계가 종결되는 단계로 구분했다. 그러나 이 구분법은 대인관계가 성립되고 진전되는 단계까지는 이전의 구분법과 차이가 없다.

그런데 Levinger의 전해가 필자에게 주목을 끄는 점은 시간과 함수관계를 갖고 변화되는 대인관계의 깊이라는 일차원적 분류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필자가 보기에는 대인관계의 변화란, 행동적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밀접성 혹은 친밀성 수준이라는 단일 차원보다는 다차원에 의해서 더 적절히 설명되고 예언될 수 있기 때문이다. Levinger의 접근법을 관심있게 보는 이유는 그가 대인관계의 진전에 따라서 대인행동이 변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비록 체계화되지는 못했을망정, 이 가정을 토대로 이성관계의 진전에 따라서 친밀성 차원과 관련된 행동들이 달라지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알아내고자 시도했기 때문이다.

Levinger(1974)의 논문에 인용된 Mack(1972)의 연구에서는 이성관계에서 친밀도 수준별로 각각 어떤 행동들이 밀접히 연관되는지 알아내고자 했다. Mack은 이성간의 관계를 상호 개입의 정도에 따라서 ① 우연히 알게된 수준 ② 좋은 친구나 애인은 아닌 수준 ③ 전적으로 몰입된 관계는 아니나 상호 매력을 느끼는 수준, 및 ④ 깊이 사랑하며 관계를 지속하려는 완전히 개입된 수준으로 분류했다.

Mack은 그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서 친밀성을 나타내기 위해 적절한 52개의 행동들을 임의적으로 가려내고, 대인관계의 네 밀접성 수준에서 각각의 행동들이 일어날 확률의 지각을 알아보았다. 즉, 이성관계의 진전에 따른 행동의 변화를 직접 다루지 않고, 각 단계별로 고정관념화 되어 있는 행동을 다루었다. 이 연구결과, 이성관계의 개입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친밀한 행동의 발생 확률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았다. 즉, 웃고, 가까이 접촉하며, 함께 공부하고, TV를 함께 보는 등의 행동들은 우연히 알게된 경우에도 50% 이상의 쌍들이 함께 하는 행동으로 판단됐으나, 완전히 개입된 친밀한 애정관계에서는 이 행동들의 발생 백분률이 평균 90%에 이른다. 또한, 우연히 알게된 초기 대인관계에서 30% 미만의 낮은 백분률을 보이다가 친밀한 관계로 발전되면서 평균 90% 정도로 크게 변화를 보인 행동으로는 신뢰, 손잡기, 상대방의 등을 어루만지기, 음식 준비, 동거, 상대방 이외의 타인과의 데이트나 접촉의 거절 등이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Levinger는 대인관계의 친밀도 수준을 특징짓는 지표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즉, 표면적 접촉수준에서는 물리적으로 서로 근접하려는 행동이 두 사람 관계의 밀접성을 판단하는 두드러진 단서가 된다. 이처럼 근접성이 중요한 지표가 되는 이유는 매력이 원인이 되어서 근접성이 표출되

기도 하고 근접의 결과로 매력이 형성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면적 접촉에서와는 달리, 상호 친밀한 관계에서는 자기 보고에 의한 지표들이 관찰되는 행동적 지표들보다 더욱 중요하다. 즉, 상대방에 대한 지식, 호감, 애정, 관계에의 개입 정도, 여러 측면에서의 일치와 아울러 지각이나 기억의 왜곡, 과거에 함께 한 활동 및 쌍방이 지닌 장래의 목표에 관한 자기보고 등이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처럼 Levinger는, 비록 잠정적이라는 단서를 붙이기는 하지만, 피상적 대인관계와 친밀한 대인관계를 구별짓는 단서가 대인관계의 친밀도 수준에 따라서 질적 면에서 배타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즉, 대인관계의 수준별 차이를 결정짓는 지표들이 피상적 관계에서는 표출된 행동이지만 친밀한 관계에서는 주관적 경험의 자기 보고로 바뀐다고 본다. 그러나 이 주장은 다음의 근거에서 볼 때 적절치 못하다.

첫째,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연구자료를 보면, 표출된 행동들은 동작 수준에 가깝게 지나치게 작은 단위로 세분되어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기에 적절한 행동들이 제외되었다. 따라서 대인관계의 개입 혹은 친밀도의 깊이에 따라서 중요한 판단지표들이 질적으로 양분될 수 밖에 없었다. 이 결과는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에 근거해서 대인행동들을 가려낸 방법에 기인된 것일 수 있다.

둘째, 양자간의 개입 수준의 지표로서 긍정적이고 친밀한 측면의 행동적 단서에만 초점을 맞추으로써, 양자관계의 진전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내용을 포함하는 다양한 행동적 측면을 파악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친밀한 대인관계에서도 적대, 지배 혹은 복종 등의 행동이 실제로 일어나므로 다양한 행동을 포괄하지 못하면 대인관계의 특징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친밀도의 지표를 긍정적 행동에 국한하는 방법은 부적절하다.

셋째, 대인관계의 진전과정을 통해서 표출된 행동과 주관적 경험의 자기 보고는 어떤 수준에서도 양적으로 서로 달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의 진전 수준에 따라서 이 양자가 상호 배타적 지표로 쓰일 것이 아니라 이 양자를 포괄하는 지표에서의 양적 차이로서 설명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 관점에서 필자는 여러 유형의 대인관계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행동들 가운데 대인관계의 특징을 기술하기에 알맞는 행동 용어를 수집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행동적 사건들을 가려내어 사용하게 된다.

앞에서는 대인관계의 발전에 관한 Levinger의 이론을 중심으로 이 논문이 토대를 두고 있는 행동 분석의 배경을 알아보았다. 대인관계의 발전과정에서 대인행동에 초점을 두는 또 다른 이론이 Altman과 Taylor(1973; Altman, 1974; Altman, Vinsel, & Brown)에 의해서도 제안되었다. 이제 그에 의해 제안된 사회적 침투 이론(social penetration theory, 1973) 및 사회관계의

변증법적 이론(dialectic theory of social relationship, 1981)을 중심으로 이 논문이 취한 접근법의 특징을 부각시켜 보기로 한다.

사회적 침투이론에서 사회적 침투란, 대인간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외면적 대인 행동들과 외면적 교환에 선행되거나, 동시에 수반되거나, 그 후에 나타나게 되는 내적이며 주관적 과정을 일컫기 위한 개념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유대의 발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지 일정 시점에서의 분리된 낱말의 행동들을 별도로 다루지 않고 양자간의 유대와 관련되는 총체적 인간의 분석이 필요하다(Altman & Taylor, 1973, pp.5-6).

Altman과 Taylor(1973, pp.129-135)는 사회적 침투 과정이 진전됨에 따라서 비언어적, 환경적 및 언어적 행동들의 특징이 변화되는데, 이 변화의 핵심은 상호 중첩되는 다음의 몇 차원으로 분류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① 친밀한 관계로 진전될수록 행동을 포함해서 상호 교환되는 내용들이 양이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풍부해진다.

② 양자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교환은 당사자들에게만 이해될 수 있는 독특한 의미를 지니므로 상호작용이 점차 독특한 형태를 띠게 된다. 비언어적 행동이거나 환경지향적 행동들(environmentally oriented behaviors)은 문화 내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고정관념화된 대인행동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에서만 주로 적용될 수 있다.

③ 대인관계가 진전됨에 따라서 양자 사이에 정보의 전달이나 수용에서 정확성, 속도, 감수성이 증가되는데, 이는 교환의 효율성이라고 볼 수 있다.

④ 대인관계가 진전됨에 따라서 동일한 감정을 전달하더라도 대안적이거나 동등한 의미를 갖는 다른 전달 방법들이 많아진다.

⑤ 대인간에 상호 역할을 알고 서로 보완해주기 때문에 행위들은 서로 협응되고, 조직화되어, 일체화된 형태를 지니게 된다.

⑥ 상호 깊은 영역까지의 투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호간에 점차 개방적이 되고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

⑦ 대인관계가 진전될수록 상호 교환에서 점차 의도적이며 자발적인 활동이 증가된다. 상호작용이 비공식적 성질을 띠게 되며, 상대방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 쉽고, 상대방의 생활에 관여하기가 편해진다.

⑧ 상대방을 평가하기가 용이해진다. 점차 서로를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고, 이 평가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

Altman과 Taylor(1973, pp.136-142)는 대인관계의 진전에서 나타나는 이상의 여덟 차원의 변화를 종합하여 대인관계의 진전 과정을 네 단계로 구분하는데, 이것이 사회적 침투이론의 4단계설이다. 물론, 단계간의 진전에는 완급과 주기가 있으므로 순조롭게 동일한 속도로 진전되지는 않지만, 대인관계의 진

전에 따라서 특징적으로 변화되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네 단계란 (1) 상호이해의 시작 단계(orientation stage), (2) 탐색적 감정 교환 단계(exploratory affective exchange stage), (3) 충분한 감정 교환 단계(full affective exchange stage), 및 (4) 안정적 교환 단계(stable exchange stage)인데, 각각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제 1 단계 : 상호 이해의 시작 단계—교류의 초기 단계에는 성격의 피상적이며 공적인 부분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서로 좁은 영역의 내용만을 교류하게 되고 반응의 폭도 풍부하거나 폭 넓지 못하며, 대체로 문화나 사회적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행동 형태를 보인다. 서로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 하고 의복착용이나 행동 방식은 문화적 규범에 맞도록 한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에서 성격의 피상적 측면에서만 교환이 이루어지며 개인의 독특성은 거의 표현되지 않는다. 언어적 교류도 극히 제한되며, 제스처나 얼굴 표정도 제한된다. 상호간에 나쁘게 혹은 개방적으로 평가하려 하지 않는다. 두 사람 사이에 합치점도 국한된 영역에서만 나타나고, 같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대안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의 수가 극히 제한된다. 두 사람 관계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행동이 거의 안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이 단계의 특징은 관습에 따라서 상호간에 탐색하고 교류하는 조심성, 그리고 상대의 기본적 측면에 단지 시험적으로만 침투해보는 시험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제 2 단계 : 탐색적 감정 교환 단계—우연히 만나서 사귀어 사람이나 다정한 이웃과의 관계에 비유할 수 있는데, 이전 단계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공적이면서 피상적 영역에서 정보소통이 확대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며, 상호 이해되며, 독특성을 띄게 된다. 언어나 비언어적 반응이 합치되는 의미를 지니며, 상호작용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행동적 단서들의 해석이 정확해진다. 상대방을 평가하고 자신에 관해 평가받으려는 경향도 커진다. 중간 수준의 친밀성을 의미하는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대인행동들이 피상적 수준에 머물며, 다정하고, 편안하고, 일시적 관계로서, 개입 수준은 낮아서 피상적 수준에서의 침투에 한정된다.

제 3 단계 : 감정 교환 단계—친밀한 우정 혹은 약혼관계에서처럼 서로 오랜 동안 사귀어 잘 알게 된다. 자연스럽게 행동이 이루어지며, 서로 즐기며, 편안하게 느낀다. 상호작용 과정에서 성격의 다양한 측면이 교류된다. 반응들은 서로 쉽게 대치가 가능해지며 여러 정보소통 방법을 바꾸어 쓸 수 있다. 상호이해가 가능해서 피상적 내용에서는 상호간에 합치가 되며,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이상의 여러 측면이 형성되므로 상대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평가할 태세가 갖추어진다. 따라서 성격의 깊은 영역을 제외한 피상적 내용에서는 비판 혹은 칭찬, 적대 혹은 애정, 인정 혹은

비난을 쉽게 위협받지 않고 할 수 있게 된다. 정보소통에서의 독특성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며, 제한적이지만 사적 혹은 성격의 핵심적 요소에 관한 소통이 증가된다. 친밀한 감정의 행동적이거나 언어적 표현도 자주 나타난다. 친밀한 대인관계에 관한 문화적 고정관념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게 된다. 그러나 양자간의 교환이 자발적이고 의도적이라고는 하지만, 조심스럽게 이루어지며, 매우 친밀한 수준의 상호작용은 정형화된 형태로 지속된다. 상호간에 장벽이 무너지고 두 사람은 상대방에 관해서 서로 개성있는 존재로 보게 되며 서로 많은 내용을 알게된다. 이 단계에서는 성격의 중요한 영역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제 4 단계 : 안정적 교환 단계 - 소수의 대인관계에서만 이 단계까지 진전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개방적이고, 풍부하고, 자발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성격의 핵심이 아닌 내용을 정보소통할 때에는 의미를 오해하는 일이 매우 드물다. 정보소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며, 언어적 수단 이외에도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많고, 두 사람간에 상당한 합치점과 상호의존성이 성립된다. 서로 매우 잘 알고 타인의 감정이나 행동을 해석하고 장차의 행동을 예언할 수 있게 된다. 비언어적 및 환경적 행동들이 매우 많으며 얼굴표정, 제스처, 동작, 접촉 등에서 제약이 적어진다. 두 사람이 지니고 있는 것들을 서로 잘 알며 사용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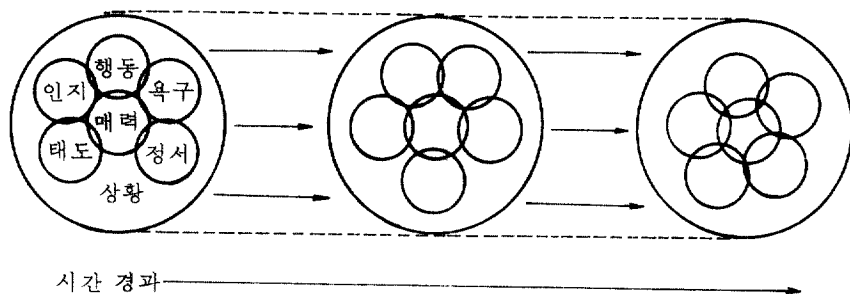
위에서 요약한 사회적 침투이론에서 필자가 특히 주목하는 점은, 대인관계에서 발생되는 행동, 내적이며 주관적 경험, 및 환경행동 등이 상호관련을 지니는 총체적 성격을 지니며, 대인관계의 진전 시점에 따라서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보는 가정이다. 그러나 사회적 침투이론에서는 상호 관련된 측면들 가운데 대인관계가 진전되는 시점에 따라서 각각 몇 측면만이 선택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만약 시점에 따라서 몇 측면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하려면, 여러 단면들이 상호관련되는 양상을 설명하고, 그 가운데 몇 측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배경을 밝혀야 한다. 즉, 대인관계의 진전 시점에 따라서 질적으로 변화하는 특징이 몇 측면으로 축약되는 근거나 규칙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침투이론에서 주장하는 여러 측면이 대인관계의 진전 과정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보면 실증적 연구에서 여러 측면을 상호 관련지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회적 침투이론은 이론적이거나 실증적 연구에서 이 두 요구에 적절한 대처가 결여되었다.

사회적 침투이론과 관련된 실증적 연구들을 보면, 여러 측면들 각각이나 여러 측면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대인관계의 진전 시점별로 다룬 연구는 없고, 제한된 행동영역에 국한하여 변화를 다루는데 그쳤다. 즉, 실제 대인관계 상황이나 모의 상황에서 언어적 정보소통 행동인 자기노출의 내용을 분석하여 친

밀도 수준과 주제의 다양성에서의 변화만을 다룬 연구가 대부분이다(Taylor, 1968; Altman & Haythorn, 1965; Frankfurt, 1965; Colsen, 1968). 이 행동적 단면 이외에는 사공간 사용과 관련하여 대인간 경계의 범위를 다룬 측면과 관련짓지 않고 독립적으로 다룬 연구(Taylor, Altman, & Sorrentino, 1969; Page, 1968)가 보고되었을 뿐이다. 행동적 측면만을 다루더라도 일방의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을 포함해서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다양한 행동들을 포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인관계가 밀접한 수준으로 진전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면 표출된 행동적 사건은 물론이고, 정서, 대인평가 혹은 매력, 사건에 대한 추론이나 주관적 해석을 포함하는 인지, 욕구 및 상황의 맥락 등의 단면이 포괄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근거에서 필자는 대인관계의 진전 과정을 이해하는 틀을 [그림 1]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림 1] 대인관계의 진전과정을 이해하는 틀

[그림 1]의 이해의 틀은 대인관계의 진전과정을 연구하기 위한 일종의 구체적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 선행연구들에서 발견되는 제약점들을 염두에 두고, 이 제약들을 벗어나서 대인관계를 이해하는데 요구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해의 틀이라고 부른 것이다.

그림에는 여섯가지의 단면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단면들 가운데서 핵심을 이루는 단면이 시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점별로 단면들 간의 상호연관성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엮물린 형태로 제시되었다. 엮물렸다고 하지만, 이 단면들은 내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상호 독립성을 지닌다. 예를 들면, 필자(1985)의 연구에서 대인매력과 대인행동의 수 혹은 대인행동의 하위단면인 자기노출 수준 간에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는데, 이는 상대적 독립성을 나타내는 구체적 예가 된다.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지니는 이 단면들은 각각 최소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다.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인행동에는 행동적 사건, 언어적 행동, 비언어적 행동, 그리고 공간 사용 등의 환경지향적 행동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가운데 언어적 행동을 예로 들어서 그보다 하위위계의 내용을 든다면, 교류된 정보의 내용에 따라서 노출수준이나 사회적 욕망도 등을 다룰 수 있으며, 또한 교류된 언어의 형태에 따른 형식의 분석도 가능하다.

매력이나 정서적 사건이 행동과 구분된 이유는, 안정성 있는 호감 혹은 평가적 판단으로 정의되는 매력이, 기복이 있고, 불안정하며, 다양한 질적 특징을 보이는 정서와 구별되며, 또한 매력이나 정서가 반드시 이를 나타내는 행동으로서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인관계를 이루고 있는 두 사람의 태도는 다양한 대상에 대하여 행동하는 데 대한 선호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서 양자간의 여러 태도나 가치에서의 유사성은 이 단면에 포함된다.

개인차 요인과 관련해서는 대인관계의 독특성에 관련되는 요소로서 욕구에 주목하였다.

인지에서는 여러 단면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에 관한 해석, 추론,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사고나 대인관계 자체에 대한 평가, 장차의 대인관계에 대한 예견이나 기대가 형성되고 변화되는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상황적 단면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양자관계가 과거에나 현재 처해있는 특수하고 구체적인 물리적 및 사회적 요인들을 포함한다.

필자는 이 여러 단면이 모든 시점에서 동일한 양상으로 상호관련되거나 상호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며, 이 단면들의 상대적 중요성 역시 모든 시점에서 동일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단면들이 상호관련되고 상호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관한 지식이 축적된 후에는, 이 지식을 토대로 여러 단면 가운데 공통 요소나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서 소수의 단면으로 이해의 초점이 좁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는 선택적이거나 주관적 배경에서 중요성이 크리라고 본 몇 개의 단면만을 선택적으로 가려냄으로써 이해의 초점을 맞추는 일이 잘못된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왜냐하면 매력이라는 한 단면, 대인행동과 대인매력, 혹은 자기노출과 공간 사용처럼 한 단면이나 두 단면에만 배타적으로 관심을 보임으로써 여러 단면에 관한 지식이 균형있게 축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림의 이해의 틀에는 한 시점에서의 여러 단면의 특징들이 다음 시점에서의 어느 한 단면이거나 몇 단면에 미치는 영향을 다룰 수 있다는 점이 표현되어 있다. 여러 단면에서의 변화를 시간적 경과에 따른 시점별 차이에 따라서 이해하는 일은 현재의 대인관계 발전이론들을 볼 때 매우 필요하다. 왜냐하면 여러 단면들 가운데는 대인관계가 지속되는 모든 시점에서 계속해서 대

인관계를 특징짓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단면들도 있을 수 있고, 이와는 달리 시점에 따라서 영향력이 달라지는 요인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인지적 경험이나 행동적 사건에 비해서 대인매력이 대인관계가 진전되는 모든 시점에서 진전 정도를 결정짓거나 판단하는 결정적이거나 중요한 단일 지표가 못될 수도 있다. 두 사람이 지나는 태도 역시 대인관계의 진전과정에 따라서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예이다. 피상적 대인관계에서 유사성이 높을수록 매력이 높아진다는 결과(예 : Byrne), 오래 사귄수록 두 사람 사이에 태도의 유사성이 높아진다는 결과(Newcomb, 1961), 그리고 이성관계에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후보다 초기의 친교단계에서 유사성이 관계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는 주장(Murstein, 1971) 등은 태도의 단면이 시간 경과에 따라서 달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이다. 또한, 다른 단면들과 비교할 때 대인매력은 대인관계가 충분히 진전된 단계보다는 초기단계에서 진전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일 수도 있다.

대인관계의 진전 시점에 따라서 여러 단면의 영향력이 서로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염두에두고 본다면, Levinger가 친밀 수준의 판단 준거로서 행동적 지표와 감정적 지표만을 강조한 주장이나 Murstein(1971)의 이성관계의 진전단계에 따른 자극-가치-역할모형(SVR model)은 제한된 단면만을 다룬 단계 구분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려면 여러 단면을 대인관계가 진전되는 시점에 따라 종단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중요한 단면이 부각되거나 사라지는 양상이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인관계의 이해의 틀에서는, 선행연구가 좁은 영역에 한정됐던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 단면별 변화의 분석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단면들 상호간의 관련성과 인과관계의 이해가 이루어지며, 대인관계의 진전에 따라서 변화되는 내용의 종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를 대인관계의 진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이해의 틀이라고 부른 이유는 전반적 대인관계 연구의 방향을 정위짓는데 목적이 있으며, 기본적 수준에서는 각 단면별 연구가 진요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 보고되는 실증적 연구는 이러한 기본적 목적에서 우정관계의 진전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동적 사건을 다룬다. 행동적 사건의 분석은 분석의 틀이 되는 행동모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다음에는 대인관계의 행동적 분석이 성립된 사적 배경과 필자의 행동모형이 수립된 절차에 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대인관계의 진전과정이나 다양한 대인관계의 성질을 특징짓는 행동적 사건들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이 행동적 단면을 이해하는 일이 대인관계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행동적 사건이란, 대인관계에서 외면적으로 표출되어서 관찰이 가능한 활동은 물론이고, 행위자들에게만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활동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행동적 사건의 이해를 통해서 대인관계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행동적 사건을 매력, 태도, 정서, 인지, 욕구 및 상황의 맥락요인들과 관련지음으로써 대인관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를 할 수도 있다. 즉, 대인관계의 특징을 태도적 차원의 차이로만 특징짓는데 따르는 제한점을 벗어날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주의깊게 살펴보면 대인매력을 넓은 의미의 태도적 차원에서 정의짓는 학자들이 모두 행동적 측면을 무시한 것은 아니고 매력을 측정함에 있어서 행동적 측면과 관련짓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 즉, 대다수의 매력연구자들은 매력을 측정할때 호감을 느끼는 대상의 특성을 판단케함으로써 호·불호의 감정적 측면에서의 일반적 태도로서 측정했다. 그러나 Byrne(1971)이나 Rubin(1973)은 행동적 요소와 감정적 내지 인지적 요소를 단편적으로 조합시켜서 매력측정치로서 사용했다. Byrne(1971, pp. 426-427)의 대인판단척도(IJS, interpersonal judgement scale)는 상대방을 좋아하게 될 확률의 지각과 실험에서 함께 일하는 행동의 호오도에 대한 신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Rubin은 호감(liking)과 사랑(love)이라는 특수한 대인관계에서의 대인매력을 다루었는데, 그 역시 행동적 요소를 주축으로 하고 감정이나 사고의 내용을 첨가하고 있다. 즉, Rubin(1973, p.27)은 선호 혹은 선택의 의미가 있는 호감의 구성요소는 ① 애정(affection)과 ② 존경(respect)이라고 본다.

여기서 애정이란 개념적으로 정서적 다정함과 밀접성을 뜻하며, 존경은 타인이 지닌 훌륭한 특징 혹은 행위에 대한 판단을 뜻한다. 따라서 두 구성요소 가운데 어느 한 요소만 강하거나 두 요소가 모두 강한 정도에 따라서 여러 유형과 여러 수준의 호감이 결정된다. 개념적으로는 이처럼 정의되었지만, Rubin이 실증적 연구에 사용한 호감척도의 문항들을 통해서 조작적으로 정의된 내용을 보면, 적응도, 타인들에의 추천, 성숙도, 신뢰도, 선호도, 존경, 호감, 자신이 닮고 싶은 유형인지의 판단 및 경탄을 주 내용으로 하고, 동일한 기분의 경험, 선출, 지적 수준, 그리고 유사 정도를 추가하여 찬성(진실)-반대(진실이 아님)의 9점 선분형 평정 척도에 반응토록 했다. 이 척도 문항들의 내용 가운데 대상 인물의 성격에 대한 평가적 판단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한편, Rubin(1973, pp.212-215)은 사랑을 일정한 대상 인물에 대한 태도로 개념화하고, 감정, 사고 및 행동적 성향이 담긴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사랑의 핵심적 구성 요소를 ① 애착(attachment), ② 돌봄(caring), 및 ③ 친밀성(intimacy)으로 보았는데, 이 가운데 친밀성이란 두 사람 사이에 밀접하고 비밀스런 정보소통이 이루어지는 유대 혹은 연관성을 뜻한다. 그러나 사랑 척도의 문항에서 조작적으로 정의된 내용을 보면, 신뢰, 위해 주기, 함께 있지 못했을 때의 비참함, 외로울 때 찾기, 관심갖기, 책임, 용서, 신임, 상대없이 살기 어려움, 마음 사로잡기를 주 내용으로 하고, 즐기, 상대 약점 무시, 그리고 함께 있을 때 쳐다보기가 추가로 사용된다. 사랑 척도의 문항들은 호감 척도의 문항과는 달리 내용에 있어 행동적 측면이 많이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Byrne과 Rubin의 매력척도는 인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 및 행동적 요소를 나타내는 몇 문항을 함께 혼합해서 매력을 측정한다. 그러나 이 척도들에서는 대인관계의 진전에 따라서 이 세 요소들이 변화되는 양상이나 세 측면 상호간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채로 총점에 의해서 매력 수준을 측정한다. 따라서 인지적, 감정적, 및 행동적 요소를 측정하는 문항의 수나 질에 있어서의 불균형은 말할 것도 없고, 또한 동일한 매력점수라고 하더라도 의미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비판에 근거해서 Byrne이나 Rubin의 매력 척도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로써 필자(1978)는 두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행동적 사건들 가운데서 대인관계의 친밀도 수준이라는 의미에서 동간적으로 떨어진 네 수준의 행동적 사건들을 가려내고, 이 행동적 지표에 대한 감정적 판단으로서 매력을 측정하였다. 개념적으로 이 매력 측정치는 상대에게 행할 행동에 대한 감정적 태도로서 정의한 것이다. 이 측정방법으로는 대인관계의 친밀도 수준별로 관련 행동에 의하여 매력을 세분해서 측정할 수도 있다.

매력을 대인행동에 대한 감정적 반응으로 정의하더라도 대인매력이 대인행동과 항상 일관되지 않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인관계가 진전되는 과정에 있거나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는 대인매력 이외에도 물리적 및 사회적 상황의 제약 요인이나 다른 인지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력과 행동이 불일치 되는 경우도 많다. 장차 있을 두 사람 간의 상호작용을 예견하는 인지적 요인의 영향을 예로 들면, 대인관계의 진전 과정이나 친교관계를 지속해야 될 경우에는 상대방부터 화나는 일을 당해서 다투거나 싸우고 싶더라도 참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나쁜 관계를 개선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신이 느끼는 매력과 상반되게 행동할 수도 있다. 따라서 대인관계에서 매력에 의한 행동 효과나 행동에 의한 매력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Ru-

bin이나 Altman과 Taylor와는 달리, 두 단면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 가운데 한 단면인 행동적 사건의 분석을 시도하려 한다.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행동적 사건의 분석은 여러 유형의 대인관계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행동들 사이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가정에 근거를 둔다. 대인관계의 진전과정을 예로 들면, 피상적이며 일시적으로 우연히 이루어진 행동적 사건들은 친밀한 우정이나 애정관계에서 관찰되는 행동과 비교할 때 공통점 못지 않게 서로 다른 점도 있다. 또한 친밀한 대인관계라고 하더라도 동성간의 우정관계와 이성간의 애정관계에서 동일한 행동만 발생하지 않는다. 그 뿐만 아니라 모두 밀접한 대인관계의 일종인 친밀한 관계와 적대적 관계에서 동일한 행동이 관찰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우정관계의 진전 단계에서 관찰되는 행동적 사건을 분석하는 일은 대인관계의 진전에 따라서 행동적 변화를 이해한다는 독립된 의의를 지닌다. 여기서 행동적 사건의 분석은 두 가지의 가정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 진다. 첫째는 여러 유형의 대인관계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거나 혹은 여러 유형의 대인관계에서 독특하게 발생하는 핵심적인 행동적 사건들이 있으리라는 가정이다. 두번째 가정은 핵심이 되는 행동적 사건들이 여러 대인관계에서 의미하는 바에 따라서 독립된 소수의 차원으로 분류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의 과제는 여러 대인관계에서 발견되는 행동적 사건들을 의미상 독립되는 차원들로 범주화했을 때 각 차원의 행동적 사건들이 우정관계의 진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내는 일이 된다.

대인간의 행동적 사건들이 의미상 독립적인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가정의 실증적 근거를 얻기 위하여 필자(1982)는 여러 유형의 대인관계를 특징짓는 행동적 구조를 알아내려는 연구를 수행한 바가 있다. 이 연구를 진행한 방법과 결과 가운데서 본 연구와 관련 있는 내용만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대인관계의 행동적 구조를 밝히려는 과제는 세 단계로 진행되었는데, (1) 두 사람간의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실제 행동들을 수집하여 대표가 되는 행동적 사건들을 가려내고, (2) 여러 유형의 두 사람간 대인관계들을 가려내고, 이 두 과정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해서 (3) 여러 유형의 대인관계를 특징짓는 대인행동의 차원을 분석하였다.

첫째 단계인 대인행동의 수집과 선정과정에서는 20종의 대인관계에서 실제 발생하는 행동을 수집했다. 이 단계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기술하는 데 사용하는 일상 용어를 얻기 위하여 고등학교 피험자(239명)를 많이 포함시켰는데, 대학생 피험자(151명)를 포함해서 모두 390명으로부터 독립적 의미를 지닌 동사로서 2,200개의 행동기술 용어를 얻

었다. 이 가운데서 행동의 빈도와 의미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70개의 행동을 최종적으로 가려냈다.

둘째 단계인 대인관계의 선정에서는 대인관계 일반을 다루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었으므로, 다양한 성질을 지닌 98개의 양자간 대인관계를 가려냈다.

세째 단계에서는 대인관계를 구별짓는 대인행동 차원을 알아내기 위하여 위의 98개 대인관계를 자극으로 사용하여 각각의 대인관계에서 70개 행동들을 평정케 한 자료를 요인분석하였다. 대인행동의 평정은 각 대인관계에서 실제로 관찰되는 행동의 빈도와 행동할 의도라는 두 측면에서 각각 402명과 502명의 서로 다른 대학생 피험자에게 독립적으로 실시되었다.

그 결과, 행동빈도와 행동의도 자료로부터 공통되는 세 요인이 추출되었다. 첫번째의 결합-분리 요인은 가장 큰 변량을 설명하는데, 밀접성을 나타내는 행동들과 대인관계의 형성이 없는 분리 지향적 행동들이 상반된 양극을 이룬다. 두번째 적대-애정 요인은 적대행동과 수용행동이 양극을 이룬다. 세번째 손윗 사람-손아랫 사람 행동 요인 가운데 손윗 사람 행동은 지배행동이 핵심을 이루는데, 성질상 윗 사람으로서 아랫 사람을 돌보는 행동이 포함된다. 행동빈도 자료에서 축 회전에 사용된 요인들의 변량 크기는 84.1%였는데, 이 가운데 87.9%가 세 요인에 의해서 설명됨으로써 이 세 요인들은 전체 변량의 73.9%를 차지한다.

행동의도에서도 동일한 세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축 회전에 사용된 요인들의 변량 크기가 전체 변량의 82.6%였고, 이 가운데 세 요인의 변량이 79%를 차지함으로써 전체 변량의 65.3%가 이 세 요인에 의해서 설명되었다.

대인관계를 특징짓는 행동의 세 요인들은 각기 다른 목적에서 서로 다른 방법으로 얻어진 다른 연구결과들과 일치되는 점이 많다. 대인관계의 구조를 행동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얻은 이 세 요인은, 45종의 대인관계를 25개의 행동사 척도에 평정시켜서 다차원 분석(multidimensional scaling analysis) 방법으로 얻은 Wish, Deutsch 및 Kaplan(1976)의 친밀-적대, 긴밀-피상 및 비공식-공식의 대인관계의 지각된 세 의미차원과 비교할때, 공식-비공식 요인만 다른 것이다. 또한, Triandis, Vassiliou 및 Nassiakou(1968)는 미국인과 히랍인에게서 역할을 행동기술 척도에 평정토록하여 애정, 친밀, 지배, 적대의 네 요인을 얻었다. Triandis 등(1968, p.35)은 이 네 요인을 더 기본적인 요인으로 축약하여 애정(affect)과 친밀(intimacy)로 해석했다. 이 두 요인 역시 필자의 적대-애정 및 결합-분리 요인과 동일한 성질을 지닌다. 또한, 각각 다른 목적에서 연구된 Foa(1964)의 애정과 지배, 그리고 Schutz(1958)의 대인관계에서의 애정(affect), 지배(dominance) 및 포용(inclusion)의 욕구와도 상응되며, Longabough(1966, pp.93-94)의 발달 연구에서 추출된 대

인간의 세력(interpersonal power) 및 정적 및 부정적 대인성향(positive/negative interpersonal disposition)과도 해석상 유사하다.

이상의 여러 연구결과들과 비교할 때 필자(1982)의 결과는 몇 연구에서만 보고되지 않았던, 결합-분리 차원이 독립된 요인으로 추출된 점이 특징이다. 그런데 이 요인이 추출된 결과는 연구자료와 분석방법에서의 차이에 기인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이 요인이 추출되지 않았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친밀한 관계에만 한정되는 행동적 자료들을 분석했기 때문에 필자의 세 차원 분류가 더 일반성이 있으리라고 본다. 왜냐하면 친밀한 관계가 중요한 대인관계라는 이유 때문에 이 관계들에만 연구를 한정할 경우에는 결합-분리 요인의 중요성이 독립된 요인으로 추출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도 있다. 더구나 이 차원을 제외하게 되면 대인관계의 진전과정의 초기 단계인 피상적 대인관계에서의 행동 특징을 소홀히 다루게 될 여지가 있다. 또한 여러 대인관계를 종합해 볼 때, 결합-분리 차원이 애정-적대 차원과 높은 정적 상관이 있더라도 이 두 차원은 독립적으로 구분해서 보아야 할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개념적으로 밀접한 관계에는 친밀한 관계와 적대적인 관계가 모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인관계에서의 행동적 사건의 분석 결과에서 얻은 행동의 3차원 모형은 필자와 신철균(1983, 1985)에 의해서 이성간의 대인관계의 진전 과정에 적용되어 적절성을 검토해 본 바가 있다. 이 선행연구에서는 이성관계의 진전에 따라서 행동의 발생과 행동 규범이 달라지는 양상을 해명하는데 적용되었다. 이성간의 대인관계의 진전 단계를 형식적 구분에 따라서, ① 남녀 친구관계, ② 애인관계, ③ 약혼관계, 및 ④ 부부관계로 나누고, 이 대인관계에서 삼차원의 대인행동의 차이를 행동의 빈도와 의도의 두 측면에서 반복해서 다루었다. 행동빈도와 행동의도의 두 측면을 다룬 이유는 이 모형의 적절성을 반복 연구한다는 목적 이외에도 대인관계의 현상 기술과 행동규범에서의 차이를 다루기 위해서였다.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동의 보고에서 행동의 빈도는 이성간의 각 대인관계 수준에서 자신이거나 주위 사람을 예로서 선정하여, 이들에게서 지난 한달 동안에 관찰한 행동빈도를 평정토록 하여 분석하였다. 행동빈도 자료의 분석 결과를 보면, 부부라는 친밀한 이성관계에서는 이성간의 친구관계처럼 덜 밀접한 대인관계에서 보다 결합행동 차원과 애정행동 차원에서 행동빈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와는 달리 분리행동과 적대행동 차원에서는 이성간의 친구관계에서보다 부부간의 친밀한 이성관계에서 빈도가 낮았다. 한편, 남자대학생이 보고한 바에 의해서 성별에 따른 행동 차이를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결합행동 및 손윗 사람으로서의 행동 차원에서는 행동의 빈도가

유의하게 낮았으며, 적대행동 차원과 손 아랫 사람으로서의 행동 차원에서는 유의하게 높았다.

한편, “자신이 해당 대인관계에서 행위자의 입장에 있다면 어떻게 행동하겠는가”를 평정한 행동의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부관계에서는 이성 친구 관계에서 보다 결합차원과 애정차원에서 행동의도가 강했으며, 분리행동의 의도는 낮았다. 그리고 남성이 여성보다 손 위 사람으로서의 행동의도에서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반면에 손 아랫 사람으로서의 행동의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의 행동의도 분석 결과는 행동빈도의 분석 결과와 대부분 일치하는 내용이었다. 행동빈도와는 달리 행동의도에서 차이를 보인 내용으로는, 결합행동의 의도에서 남성이 우세하고 적대행동의 의도에서는 여성이 우세하다는 판단만이 달랐다. 남성 피험자만을 대상으로 수행된 이 선행연구로부터 다음과 같은 잠정적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① 이성간의 대인관계의 진전단계가 3차원 행동모델에 의한 행동 차원별 차이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었다. 즉, 진전된 이성관계에서는 결합차원과 애정차원에서의 행동빈도가 높으며, 분리행동 차원의 빈도는 감소된다고 판단되었다. 행동의 의도를 다룬 규범에서는 친밀한 관계일수록 결합 및 애정행동 차원에서의 행동의도가 높았다.

②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행동의 발생빈도에서는 결합 및 손 위 사람 행동 차원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빈도를 보였으나, 적대행동 및 손 아랫 사람으로서의 행동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빈도를 보였다. 행동의도에서의 성별 차이를 보면 남성이 손 위 사람으로서 행동할 의도가 높다고 판단하였고, 반면에 여성은 손 아랫 사람으로서의 행동의도가 높으리라고 판단하였다. 이 결과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남성의 판단만을 다룬 연구의 제한점에 기인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의 판단에 의하여 남성과 여성간의 차이나 남녀 모두에게서 발견되는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의 차이를 알아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 내용보다 이 연구결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은 3차원 행동모형에 의해서 이성관계의 진전단계 및 성역할에 따른 행동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었다는 데 있다.

이 연구의 목적 : 우정관계에서의 행동적 사건의 변화

대인관계의 진전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동적 사건, 대인매력, 정서적 변화, 욕구, 인지 및 여러 대상에 대한 개인들의 태도, 그리고 환경 및 상황요인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앞에서 개진되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진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단면 각각에 대한 이해는 그 자체로서 최종

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의 이해를 토대로 이 단면들 상호간의 관련성을 다루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 이러한 여러 단면들이 다음 시점에서의 여러 단면의 변화에 기여하는 양상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주장은 실제로는 여러 단면들이 상호 관련이 있거나, 공변하거나, 혹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보다 적은 핵심적 요소들로 압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단면을 나열식으로 열거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행된 대인관계의 연구들은 여러 단면에 관해서 균형 있는 관심을 보이지 못했고, 여러 단면의 이해를 토대로 단면간의 상호관련성, 공변성, 혹은 인과성에 관해서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인상은 잘못된 것이다. 예를 들면 Altman과 Taylor 혹은 Levinger의 연구는 여러 단면 가운데 두 단면만을 선택적으로 관련짓고 이 제한된 정보를 축약시켜서 대인관계의 진전에 관한 대체적 인상을 기술하려 했던 성급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이들의 제안은 대인관계가 진전되는 일정한 시점들에서만 분석이 이루어지고, 시점간의 관련성이나 인과성을 묻지 않는 정태적이며 기술적 내용에 한정된다.

이러한 비판적 관점에서 필자(1985)는 행동의 양적 측면으로서 전체 행동, 긍정적 행동 및 부정적 행동, 대인행동에 대한 감정적 반응경향으로서의 대인매력, 그리고 정보소통의 측면에서 자기노출의 내용들이 우정관계의 형성과 진전과정에서 시점별로 변화되는 현상과, 일정 시점에서의 이 단면들의 상호관련성, 그리고 일정 시점에서의 이 단면의 지표들이 다음 시점에서의 대인행동이나 대인매력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보고한 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필자(1985, p.185)에 의해서 예고된 바와 같이, 선행연구(1985)의 조사 대상에게서 얻은 행동적 사건의 질적 분석결과를 제시하게 된다. 즉, 전문대학에 입학한 후에 사귀 가장 친한 친구와의 사이에서 14개월의 기간 동안에 일어난 행동적 사건을 세 시점에서 분석한다. 우정관계의 진전과정에서 나타난 행동적 사건의 분석은 대인관계 자체의 변화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단면들 가운데 행동적 단면의 이해에만 한정되는 일이지 우정관계의 진전과정을 행동적 사건의 이해로 대치시키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 다루게 될 행동의 질적 분석결과를 포함하여, 행동의 양적 측면, 대인매력, 자기노출 및 개인의 태도 등이 각 친구 시점에서 상호 관련되는 양상이나, 또한 이 지표들 각각이나 이 지표들을 모두 사용했을 때 다음 시점에서의 같은 지표들을 예언하는데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다음의 보고서로 미룬다.

이 연구의 친구 시점에 따른 행동적 사건의 분석에서는 구체적으로 통일한 자료를 (1)행동적 사건들 각각의 발생률, 그리고 (2)앞 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

이, 대인관계에서의 의미에 따라서 범주화한 행동요인별 발생빈도라는 두 방법으로 다루게 된다. 두 방법으로 반복해서 분석하는 목적은 행동적 사건의 의미를 더 정확히 파악하려는 데 있다.

방법 및 절차

(1) 절차 : 전문대학 입학생들로서 이전에는 친구가 아니었으나 입학 후에 새로 사귀 친구들 가운데서 가장 좋아하는 동성의 학생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입학 후 세 시점에서 가장 좋아하는 친구로서 동일한 인물을 선정한 학생들의 자기 보고에 의해서 행동의 발생빈도 자료를 얻었다.

(2) 조사시점 : 1981년 입학 후 한달 가량이 지난 3월말,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10월말, 그리고 제 1 조사시점에서 14개월이 지난 다음 해의 5월이 세 차례의 조사시점이었다.

(3) 행동측정치 : 필자(1982)의 연구로부터 두사람 간의 대인행동 가운데서 의미가 독립적이며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70개 행동 목록을 사용했다. 행동의 측정은 조사시점으로부터 1주일 이전의 기간 동안에 가장 친한 친구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행동들을 체크하도록 하였다.

㉠ 행동별 발생백분율 : 70개의 각 행동들이 발생된 백분율은 사례수를 기준으로하여 각 행동에 체크한 피험자 수로부터 산출했다.

㉡ 행동 차원별 발생빈도 : 필자의 선행연구(1982, 한덕웅과 신철균, 1984)에서 사용된 대인행동의 3개 기본 차원별로 측정되었다. 각 차원은 양극(兩極)의 행동요인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양극의 행동을 모두 다루었다. 각 요인별로 높게 부하된 행동들을 5개씩 가려내어 체크된 행동수를 측정치로 삼았다. 측정에 사용된 각 요인별 행동들은 다음과 같다.

제 1 차원 : 결합-분리

- 1) 결합행동-희생하다, 아끼다, 사랑하다, 돌보다, 위해준다.
- 2) 분리행동-싫어하다, 경멸하다, 귀찮아하다, 경계하다, 불신하다.

제 2 차원 : 애정-적대

- 1) 수용행동-친해지다, 협조하다, 반가워하다, 믿다, 칭찬하다.
- 2) 적대행동-다투다, 미워하다, 조롱하다, 욕하다, 싸우다.

제 3 차원 : 손 아랫 사람 행동-손 위 사람 행동

- 1) 손 위 사람 행동-꾸짖다, 충고하다, 때리다, 가르치다, 명령하다.
- 2) 손 아랫 사람 행동-모시다, 복종하다, 존경하다, 따르다, 배우다.

(4) 조사대상 : 전문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355 명을 대상으로 우정관계 조사가 실시되었다. 그 가운데 입학하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학생으로서 입학초

인 3월말부터 다음 해 5월까지 모두 세차례 계속해서 가장 친한 친구로서 동일한 인물을 선정한 71명이 분석의 대상이었다. 이 가운데 여학생은 46명이었고, 남학생은 25명이었다. 분석의 대상이 된 남학생들은 전체 남학생 147명 가운데 19.9%였으며, 분석의 대상이 된 46명의 여학생들은 여자 조사 대상인 199명 가운데 23.12%였다. 이 결과는 남녀 학생 간에 동일한 친구를 오래 사귀는 백분률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chi^2=0.99$, $n.s.$)을 의미한다.

(5) 통계처리 : 행동별 발생 백분률 자료에서 남녀를 합친 전체의 백분률은 성별에 따른 빈도의 가중치가 없는 백분률로 산출하였다. 행동별 발생 백분률에서의 성별 차이는 χ^2 검증법이 사용되었으며, 시점간 차이는 피험자내 반복측정이므로 Cochran의 T 검증법(Conover, 1971. pp.196-201)을 사용하였다. 행동요인별 발생빈도 자료의 분석은 2(성별)×3(시점)의 ANOVA가 적용되었는데, 성별은 피험자간 변인으로, 그리고 시점변인은 피험자내 변인으로 다루었다. 성별에 따라서 사례수가 달랐는데, 사례수에 따른 가중치가 없는 평균 해법(Keppel, 1982. pp.346-356)이 적용되었다. 또한, 각 행동 차원별 양극 요인들에서의 행동빈도의 차이검증에는 t검증을 사용하였다.

결 과

1. 행동적 사건별 발생 백분률의 변화

가장 좋아하는 친구와의 사이에서 발생된 각 행동의 발생 백분률이 <표 1>이다. 이 표는 성별 및 조사 시점별로 정리되었다. 이 표의 시점에 따른 행동 발생 백분률로부터 몇 가지 특징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가장 좋아하는 친구로서 처음 사귀는 1개월 경에 50% 이상의 조사대상에게서 발생된 행동들은, 인사하다(88.37), 이야기하다(87.87), 반가워하다(77.65), 친해지다(77.65), 협조하다(73.81), 동행하다(71.37), 농담하다(71.07), 질문하다(68.25), 의논하다(67.44), 즐기다(67.14), 기뻐하다(62.78), 도와주다(59.96), 만나다(56.93), 기다리다(56.71), 놀다(55.00), 및 믿다(51.67) 등의 16개 행동이었다.

발생빈도가 높은 이 행동들은 성질상 깊은 친밀성을 나타내는 행동들이라기보다 동성간의 우정관계에서 친숙을 촉진시키는 접촉행동들이 주 내용을 이룬다. 이 해석은 이 70개 행동들이 여러 유형의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빈도의 순위별 자료(한덕웅, 1982)를 비교 근거로 한 것이다. 즉, 필자(1982)의 자료에서 다양한 두사람 관계에서 발생하는 빈도 순위로 볼 때 20위 안에 드는 행동들인 사랑하다, 걱정하다, 감사하다, 아끼다, 위해주다, 부탁하다, 및 칭찬하다 등의 친밀한 관계에서 많이 나타나는 행동들이 50% 이상 발생한 16개

〈표 1〉 행동의 발생 백분율

행 동	전 체	성 별		성별 차이	시 점			시점 차이
		남	여		1 개월 후	7 개월 후	14 개월 후	
불안해하다	29.15	20.51	37.78	*	21.03	26.28	40.13	
아부하다	11.52	8.97	14.07		6.07	8.89	19.62	*
도망가다	7.11	3.85	10.37		3.33	3.33	9.66	
협조하다	82.54	76.92	88.15		73.81	85.65	88.17	
귀여워하다	38.82	29.49	48.15	*	24.36	43.46	48.63	*
의논하다	79.43	69.23	89.63		67.44	83.51	87.35	*
경멸하다	15.03	11.54	18.52		5.26	14.66	25.17	*
복종하다	14.86	8.97	20.74	*	8.59	17.99	17.99	*
아끼다	48.42	34.62	62.22	*	32.31	49.32	60.56	*
다투다	16.31	14.10	18.52		12.44	20.22	16.28	
속이다	13.08	12.82	13.33		4.96	17.99	16.28	
미워하다	22.88	15.38	30.37	*	12.44	24.36	31.84	*
때리다	9.21	10.26	8.15		6.37	14.06	7.18	
조롱하다	7.99	11.54	4.44		3.85	11.02	9.10	
욕하다	17.19	21.79	12.59		3.85	18.21	29.53	*
기뻐하다	74.99	69.23	80.74		62.78	82.91	79.28	*
경계하다	21.10	19.23	22.96		14.06	21.54	16.58	
기다리다	62.65	56.41	68.89		56.71	61.07	70.17	
무시하다	11.15	8.97	13.33		3.33	13.55	16.58	*
미안해하다	53.15	50.00	56.30		34.88	67.65	56.93	*
보호하다	22.68	17.95	27.41		10.21	26.28	31.54	*
만나다	69.26	66.67	71.85		56.93	74.32	76.54	
반가워하다	75.53	71.79	79.26		77.65	79.88	69.06	
인사하다	79.01	79.49	78.52		88.38	76.54	72.10	
즐기다	69.06	69.23	68.89		67.14	72.91	67.14	
농담하다	82.98	80.77	85.19		71.07	90.60	82.27	*
비난하다	9.77	7.69	11.85		4.44	8.29	16.58	
희생하다	16.68	14.10	19.26		9.10	17.69	23.25	*
전화하다	44.22	41.03	47.41		15.22	57.74	54.71	*
싫어하다	15.43	6.41	24.44	*	5.56	14.15	26.58	*
이야기하다	89.13	87.18	91.11		87.87	90.90	88.68	
감사하다	52.51	48.72	56.30		42.57	56.11	58.85	
귀찮아하다	21.20	17.95	24.44	*	6.07	21.03	36.50	*
질투하다	16.17	6.41	25.93	*	8.89	15.56	24.06	
의지하다	26.49	16.67	36.30	*	17.69	28.80	32.95	
피하다	12.54	10.26	14.81		1.93	9.40	26.28	*
동정하다	14.93	12.82	17.04		7.18	14.66	22.95	*
놀다	61.37	53.85	68.89		55.00	66.63	62.48	

〈표 1〉 계 속

행 동	전 체	성 별		성별 차이	시 점			시점 차이
		남	여		1 개월 후	7 개월 후	14 개월 후	
가르치다	29.39	26.92	32.85		19.32	30.13	38.72	
그리워하다	20.73	19.23	22.22		8.59	24.57	29.02	*
오해하다	25.00	15.38	34.62		4.15	25.99	22.95	*
존경하다	14.29	11.54	17.04		6.37	10.51	25.99	
자랑하다	31.24	26.92	35.56		17.99	36.20	39.53	*
눈치보다	13.21	6.41	20.00	*	7.48	12.22	19.91	
악수하다	39.18	48.72	29.63	*	46.03	31.76	39.74	
따르다	23.45	12.82	34.07	*	16.33	24.36	24.66	
명령하다	14.69	6.41	22.96	*	10.51	14.15	19.40	
친해지다	76.07	74.36	77.78		77.65	75.13	75.43	
서먹해지다	30.33	24.36	36.30		24.66	31.24	35.09	
무서워하다	4.15	3.85	4.44		0.00	3.04	9.40	
검주다	4.15	3.85	4.44		1.11	2.22	9.10	
꾸짖다	14.39	10.26	18.52		5.26	16.58	21.33	
걱정하다	40.67	29.49	51.85	*	19.91	45.68	56.41	*
도와주다	65.02	64.10	65.93		59.96	65.22	69.88	
질문하다	63.80	65.38	62.22		68.25	62.69	60.47	
민다	56.09	55.13	57.04		51.67	62.99	53.59	*
보살피다	17.82	8.97	26.67	*	8.89	22.14	22.44	*
신경질부리다	24.36	15.38	33.33	*	10.51	26.58	35.59	*
충고하다	35.93	33.33	38.52		12.44	46.20	49.15	*
화내다	24.26	16.67	31.85	*	7.78	26.58	38.42	*
돌보다	11.46	5.13	17.78	*	3.33	10.00	21.03	*
싸우다	6.47	2.56	10.37	*	2.22	6.37	10.82	*
괴로워하다	18.19	8.97	27.41	*	3.33	20.22	31.03	*
위해주다	36.80	26.92	46.67	*	23.25	40.13	47.01	*
불신하다	7.73	10.26	5.19		5.77	8.29	9.10	
동행하다	76.23	62.82	89.63	*	71.37	81.28	76.03	
까불다	33.39	23.08	43.70	*	25.77	32.65	41.76	
부탁하다	47.82	42.31	53.33		34.06	52.99	56.41	
배우다	30.60	25.64	35.56		19.89	38.44	33.46	
칭찬하다	55.99	56.41	55.56		47.82	57.44	62.69	

행동들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 1 시점에서 50% 이상의 발생률을 보고한 행동 가운데 농담하다, 즐기다, 놀다 등의 세 행동은 다양한 대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빈도 순위로 볼 때에는 20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 행동들

로서, 이 행동이 특히 우정의 형성단계에서 높은 발생률을 보임을 알 수 있다.

② 1개월째에는 보고되지 않던 행동 가운데서 친교가 시작된지 7개월 후인 2회 조사 시점에서 50% 이상의 피험자가 발생을 보고하여 새로 추가된 행동은, 미안해하다(67.65), 전화하다(57.74), 칭찬하다(57.44), 감사하다(56.11), 부탁하다(52.99)이었다. 그리고 친교가 시작된지 14개월 후에는 아끼다(60.56) 및 걱정하다(56.41)의 두 행동이 50% 발생률을 보인 행동으로 더 추가되었다.

이 결과는 일반적으로 발생 순위가 높은 행동들 가운데, 친밀한 내용을 나타내는 감사, 부탁, 칭찬 등의 행동이 사귀기 7개월에, 그리고 아끼다와 걱정하다가 사귀기 14개월의 시점에서 추가되어서, 이 행동들이 친밀도가 높은 우정관계로 발전되어야 빈번히 나타남을 알 수 있다.

③ 가장 좋아하는 친구와의 우정관계에서 세 조사시점간에 발생 백분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행동들은 70개 행동 가운데 32개였다. 이 행동들은 우정관계의 발전 수준을 가려낼 수 있는 좋은 행동적 지표로 볼 수 있겠다.

2. 성별에 따른 행동적 사건 발생의 차이

우정 행동의 발생률에서의 성별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우정에서 두드러지게 달리 나타나는 행동적 지표를 알아볼 수 있다. <표 1>의 성별에 따른 각 행동별 차이검증(χ^2 test) 결과로부터 성별에 따른 우정 행동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겠다.

① 전체 행동의 발생률을 종합해 보면, 선행연구에서 전체 발생된 행동의 빈도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여성의 우정관계에서 남성보다 높은 행동발생률을 보였다($F_{1,69}=5.05, p<.05$).

② 우정관계에서 심한 정서적 기복이 포함되는 행동의 발생 백분률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즉, 싸우다, 화내다, 신경질부리다, 걱정하다, 불안하다, 미워하다, 싫어하다, 질투하다, 눈치보다, 괴로워하다 등의 강한 정서적 경험을 수반한 행동의 발생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 행동들 가운데는 관찰하기 쉽도록 외면적으로 표출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경험들도 포함되어 있다.

③ 여성의 우정관계에서는 전통적으로 여성적 성역할과 동일시되는 행동들의 발생백분률이 남성의 우정에서보다 높았다. 즉, 아끼다, 귀여워하다, 의지하다, 복종하다, 보살피다, 위해주다, 따르다, 돌보다 등의 행동이 남성보다 여성에서 유의하게 높게 발생됐다. 이는 성별에 따라서 우정의 특징이 서로 다름을 뜻한다.

3. 대인행동 모형에 따른 차원별 행동빈도의 분석

앞에서 70개 행동 각각의 발생률을 다룬 것과는 달리, 대인행동에서 공통적 특징을 지니는 3차원 6개의 행동요인별로 자료를 분석했다. 즉, 양자간의 대인행동 구조의 기본 요인을 결합-분리, 적대-애정 및 손 아랫 사람 행동-손 위 사람 행동으로 구분했을 때, 이 각각의 요인에서 친교 기간에 따른 행동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결합-분리 행동

제 1 요인 가운데 결합행동 빈도의 평균은 <표 2>와 같다.

<표 2> 결합행동 발생빈도의 평균

시점 성별	1개월 후	7개월 후	14개월 후	전 체
남	1.46(3.14)	4.04(6.84)	3.54(4.27)	3.01(5.12)
여	2.02(3.19)	4.53(4.06)	6.22(6.19)	4.26(4.96)
계	1.83(3.18)	4.36(5.20)	5.29(5.74)	3.83(5.05)

이 자료의 변량분석 결과, 세 시점에서의 행동빈도 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_{2,134}=8.94, p<.001$), 또한 시간이 경과될수록 결합행동의 빈도가 증가되었다($F_{lin(1,67)}=22.41, p<.001$). 그러나 성별에 따른 주효과($F_{1,67}=2.32, n.s.$)나 성별과 시점과의 상호작용 효과($F_{2,134}=1.24, n.s.$)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들로부터 전체적으로 남녀 간에 큰 차이 없이 동성인 친구에게 결합행동을 보이는 빈도가 시간 경과에 따라서 증가됨을 알 수 있다.

제 1 요인 가운데서 친교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분리행동의 발생빈도 평균을 제시한 것은 <표 3>과 같다.

<표 3> 분리행동 발생빈도의 평균

시점 성별	1개월 후	7개월 후	14개월 후	전 체
남	.67(1.77)	1.71(3.34)	1.92(3.99)	1.43(3.22)
여	.74(2.20)	1.28(1.61)	2.28(3.07)	1.43(2.46)
계	.71(2.06)	1.43(2.36)	2.16(3.42)	1.43(2.74)

이 자료의 변량분석결과, 세 시점 간 차이만 유의했다($F_{2,136}=5.04, p<.01$). 즉, 시간이 경과될수록 행동빈도가 증가되는 추세를 보였다($F_{lin(1,68)}=8.29$).

$p<.01$).

남녀간의 성별에 따른 주효과($F_{1,68}=0.87, n.s.$)나 성별 $\times$ 시점의 상호작용효과($F_{2,136}=0.41, n.s.$)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대인행동의 제 1 차원인 결합-분리 행동 차원에서 결합 행동과 분리 행동 빈도의 상대적 차이를 보면, 결합행동($\bar{x}=3.83$) 이 분리행동($\bar{x}=1.43$)의 빈도보다 유의하게 높다($t_{70}=3.49, p<.01$). 이러한 경향은 사건지 1개월 후($t_{140}=2.47, p<.05$), 7개월 후($t_{70}=4.29, p<.01$), 그리고 14개월 후($t_{70}=3.92, p<.01$)에서 모두 같았다.

(2) 애정-적대 행동

애정행동 빈도의 평균은 <표 4>에 제시되었다.

<표 4> 애정행동 발생 빈도의 평균

시점 성별	1개월 후	7개월 후	14개월 후	전 체
남	.33(.99)	.88(1.67)	3.00(3.82)	1.40(2.73)
여	.48(.88)	1.74(2.67)	2.02(2.49)	1.41(2.27)
계	.43(.92)	1.44(2.41)	2.36(3.05)	1.41(2.43)

변량분석 결과를 보면, 시점에 따른 주효과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_{2,136}=18.55, p<.001$). 즉, 시간이 경과될수록 애정행동이 증가되었다($F_{lin(1,66)}=25.63, p<.01$). 또한, 성별 $\times$ 시점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했다($F_{2,136}=3.58, p<.05$).

애정행동의 빈도에서 성별 $\times$ 시점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했는데,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남녀별로 구분해서 시점효과를 분석한 단순 주효과와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았다. 애정행동에 있어서 세 시점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현상은 남학생($F_{2,24}=9.68, p<.001$)이나 여학생($F_{2,46}=9.67, p<.001$)에서 모두 같았으나, 남학생이 6개월 경과 후 14개월 사이에 친구에 대한 애정행동 빈도가 급속히 증가된 현상(2시점 $\bar{x}=0.88$, 3시점 $\bar{x}=3.00$)과는 달리, 여학생에게서는 제 2 시점 직후에서 이미 높아져 같은 기간 동안에 남학생보다 증가 추세가 매우 둔화되었다(2시점 $\bar{x}=1.74$, 3시점 $\bar{x}=2.02$).

한편, 제 2 차원의 적대행동 빈도의 평균은 <표 5>와 같다.

적대행동의 빈도를 변량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시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_{2,132}=6.80, p<.01$). 즉, 시점이 경과됨에 따라서 적대행동이 증가되었는데($F_{lin(1,66)}=11.88, p<.01$), 이 결과는 상식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는 피상적 관계에서 보다 부정적 행동이 낮아지리라는 통념과는 다르다. 그러나 제

〈표 5〉 적대행동 발생 빈도의 평균

성별 \ 시점	1 개월 후	7 개월 후	14 개월 후	전 체
남	0.58(0.71)	1.82(0.71)	1.82(0.66)	0.91(0.74)
여	0.95(0.72)	1.26(0.88)	1.24(0.90)	1.49(0.85)
계	0.83(0.74)	1.20(0.84)	1.19(0.83)	1.17(0.82)

1 시점으로부터 제 2 시점까지 적대행동이 증가되지만 제 2 시점부터 제 3 시점 사이에는 적대행동의 빈도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별에 따른 주효과나 성별×시점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는 유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남성보다($\bar{x}=9.14$) 여성에게서($\bar{x}=11.49$) 적대행동의 빈도가 다소 높은 경향이 있으나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유의수준에 이르지 못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처음 사귀는 제 1 시점에서 여학생($\bar{x}=9.48$)이 남학생($\bar{x}=7.08$)보다 적대행동이 더 많은 인상을 보였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대인행동의 제 2 차원인 애정-적대 행동 차원에서 애정행동과 적대행동의 빈도 차이를 보면, 세 시점을 합쳐서 전체적으로는 애정행동($\bar{x}=1.41$)과 적대행동($\bar{x}=1.17$)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_{70}=0.78, n.s.$). 그러나 우정형성 후 1개월 후($t_{70}=2.83, p<.01$)에는 적대행동이 애정행동보다 빈도가 높았고, 14개월 후($t_{70}=3.10, p<.01$)에서는 애정행동 빈도가 적대행동 빈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우정형성 후 7개월 경에 애정행동($\bar{x}=1.44$)과 적대행동($\bar{x}=1.20$) 빈도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우정관계가 형성되는 일정 시점까지는 적대행동이 애정행동에 못지 않게 빈번히 나타남을 의미한다.

(3) 손윗사람-손아랫사람 행동

이 요인에서 손윗사람으로서의 행동 빈도의 평균은 〈표 6〉과 같다.

〈표 6〉 손윗사람 행동 발생 빈도의 평균

성별 \ 시점	1 개월 후	7 개월 후	14 개월 후	전 체
남	1.35(3.52)	2.52(3.28)	2.35(2.12)	2.07(3.49)
여	1.96(3.45)	2.72(3.21)	3.17(3.42)	2.62(3.40)
계	1.75(3.49)	2.65(3.23)	2.90(3.07)	2.43(3.30)

이 자료를 변량분석한 결과, 시점($F_{2,134}=2.53, n.s.$), 성별($F_{1,67}=0.90, n.s.$)

에 따른 두 주효과와 시점×성별 상호작용($F_{2,134}=0.18, n.s.$)에서 모두 유의 수준에 이르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수평적인 동성간의 친구관계에서 윗 사람으로서의 지배적 행동이 성별이나 시점에 따라서 유의하게 달라지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손 아랫 사람으로서의 행동 빈도의 평균치는 <표 7>과 같다.

<표 7> 손 아랫사람 행동 발생 빈도의 평균

시점 성별	1개월 후	7개월 후	14개월 후	전 체
남	1.17(2.56)	2.91(5.36)	3.04(4.62)	2.38(4.43)
여	1.72(2.70)	3.47(5.23)	3.36(3.53)	2.85(4.04)
계	1.54(2.67)	3.29(5.28)	3.26(3.93)	2.70(4.18)

변량분석 결과, 세 시점 사이에 행동빈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_{2,136}=4.51, p<.05$). 즉,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아랫 사람으로서의 행동에 증가되는 일차식 성분이 유의했다($F_{lin(1,68)}=9.49, p<.01$). 그런데 성별에 따른 단순 주효과 분석결과, 여학생에게서만 시점에 따라서 행동빈도가 높아졌다($F_{2,92}=3.48, p<.05$). 이 결과는 앞의 각 행동별 발생백분율의 분석결과에서 여성의 우정관계에서 남성보다 여성 성역할과 관련된 여러 행동들의 발생률이 높았던 사실과 일치한다.

남녀 간에 동성 친구에게 행한 아랫 사람으로서의 행동 빈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F_{1,68}=0.44, n.s.$), 성별×시점의 상호작용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_{2,136}=0.02, n.s.$).

한편, 대인행동의 제 3 차원인 손 윗 사람 행동과 손 아랫 사람 행동에서 손 윗 사람으로서의 행동 빈도와 손 아랫 사람으로서의 행동 빈도의 차이를 비교해보자. 세 시점을 합쳐서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t_{70}=0.42, n.s.$)에나 시점별로 구분하여 비교했을 때(제 1 시점에서의 $t_{70}=0.40, n.s.$, 제 2 시점에서의 $t_{70}=0.87, n.s.$, 그리고 제 3 시점에서의 $t_{70}=0.60, n.s.$) 모든 시점에서 양극 행동요인의 빈도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동성간의 우정관계가 지배-복종의 불균형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임을 나타내는 결과로 해석된다.

논 의

1. 행동적 사건별 발생 백분율

시점별 발생률의 차이가 유의한 행동적 사건들은 70개 행동 가운데 32개에

달했다. 이 결과만으로도 이 연구에 사용된 행동적 사건들이 우정관계의 진전 정도를 구별지을 수 있는 지표들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연구에 사용된 행동적 사건들은 여러 유형의 대인관계에서의 일반적 발생 빈도를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이 행동적 지표로서도 우정관계의 진전을 가려볼 수 있지만, 우정이라는 특수한 대인관계에서만 흔히 관찰되는 행동들 가운데서 빈도가 높은 행동을 새롭게 가려내어 추가한다면 우정관계의 진전에 따라서 달라지는 행동양상을 더 잘 변별할 수 있는 지표들을 구성할 수 있겠다.

시점별로 볼 때, 사귀지 일개월 짜인 제 1 시점에서 조사 대상의 50% 이상이 발생을 보고한 행동적 사건들은 16개였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 두 가지 점이 주목된다.

첫째, 동일한 자료에 의해서 긍정적 행동, 부정적 행동 및 전체 행동적 사건의 발생수만을 보고했던 필자(1985)의 선행 연구를 통해서, 사귀지 1개월에 비교할 때 7개월까지는 행동의 양적 증가가 현저하고 7개월과 14개월 사이에는 유의한 증가가 없었다. 그런데 행동적 사건별로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 현상은 대체로 제 1 시점에서 높은 발생률이 보고됐던 행동들이, 모두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다음 시점에서 고르게 증가한데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제 1 시점에서 50% 이상의 발생률을 보인 행동이 16개 있는데 다음 시점들에서 새로 추가된 행동들이 극히 적다. 구체적으로 제 2 시점에서 새로 추가된 행동은 감사하다, 부탁하다 및 칭찬하단의 세 행동에 불과하며, 제 3 시점에서 다시 추가된 행동은 아끼다 및 걱정하단의 두 행동 뿐이다.

둘째, 사귀지 1개월 후에 50% 이상의 발생률이 보고된 16개 행동들은 질적 성질로 볼 때 친밀도가 높은 행동들이라기 보다 친밀 수준을 촉진시키는 초기 친교단계의 행동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친교 시작 후 1개월경까지 접근을 시도하는 탐색적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 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한편, 선행연구(1985, p.185)에서 친교 시점이 경과함에 따라서 긍정적 행동과 비교할 때 부정적 행동이 증가되는 현상에 주목하여 몇 가지 해석을 시도한 바가 있다. 그러나 부정적 행동의 발생수만으로는 우정 형성 후 우정관계가 진전될수록 부정적 행동들이 질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지 알 수 없었다. 부정적 행동들을 시점에 따라서 개별 분석한 결과, 다음 세가지 점을 알았다.

첫째, 우정 형성 후 14개월이 되는 제 3 시점에서 부정적 행동들의 발생률이 높았다. 즉, 우정관계가 형성된지 한달 후에는 모두 28개의 부정적 행동 가운데 30% 이상의 발생률을 보인 행동이 하나도 없었으나, 14개월 후에는 9개 행동으로 증가했다. 이는 긍정적 행동으로 간주한 전체 20개의 행동들

가운데 존경하다(25.99%) 및 보살피다(22.4%)를 제외한 18개 행동들이 우정관계 형성 후 한달째에 이미 30%를 훨씬 넘는 발생률을 보인 사실과는 대조적이다.

우정 형성 후 초기 시점에서 부정적 행동들의 발생률이 낮고,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부정적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관계가 지속되어 친밀성이 일정 수준으로 확립된 관계에서만 부정적 행동의 발생률이 높아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둘째, 우정 형성 14개월 후인 친밀한 우정관계에서 30% 이상이 보고한 부정적 행동들은 순서대로 까분다(42%), 불안해하다(40%), 화내다(38%), 귀찮아하다(37%), 신경질부리다(36%), 서먹해하다(35%), 미워하다(32%), 괴로워하다(31%), 및 욕하다(30%)였다.

세째, 남성보다 여성이 우정관계에서 부정적 행동의 발생 빈도가 높다고 보고되었는데, 30% 이상이 보고했던 위의 부정적 행동들 가운데서 욕하다와 서먹해지다는 두 행동에서만 성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고, 나머지 행동들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발생률을 보고했다. 선행연구에서는 부정적 행동수 뿐만 아니라 전체 행동이나 긍정적 행동에서도 성별에 따른 양적 차이가 보고됐는데, 남성과 여성의 동성간 우정관계를 구별짓는 행동적 사건의 질적 차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특징지를 수 있다.

첫째, 대체로 강한 정서적 경험을 추리할 수 있는 행동들에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둘째, 여성에게서는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깊이 관련 있는 성역할 행동들의 발생백분률이 높았다.

2. 대인행동 모형에 따른 행동 요인별 분석

다양한 대인관계에서 공통적 의미를 지니는 행동들을 양극을 형성하는 3개 차원으로 구분하고, 이 구분법에 따라서 각 차원에서의 친교 시점별 행동적 사건의 변화를 보았다. 그 결과, 3차원의 6개 양극 행동 요인들 가운데 제 3차원에 속하는 손윗사람으로서의 행동의 발생 빈도에서만 시점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 밖의 5개 행동 요인에서는 우정이 형성된 후 14개월에 이르기까지 기간이 길수록 행동적 사건이 증가되었다. 필자(1985)는 선행연구에서 전체 행동수가 시점 경과에 따라서 증가됨을 보고한 바가 있는데, 증가된 내용이 적어도 다섯 개의 행동 요인들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6개 행동요인별 발생 빈도의 평균치를 사용하여 시점에 따른 변화를 알기 쉽게 그림으로 보여준다. 그림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3개

행동차원별 발생 빈도를 보면, 결합-분리($\bar{x}=5.26$) 행동이 가장 높고, 손 위 사람-손 아랫 사람($\bar{x}=5.13$), 그리고 애정-적대 행동 요인($\bar{x}=2.58$)의 순서대로 발생 빈도가 높아서 빈도 차이가 유의했다($F_{2, 1260}=55.46, p<.05$). 이와 마찬가지로 3개 행동 차원의 6개 행동 요인들의 발생 빈도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_{5, 1260}=21.30, p<.001$).

또 한가지 주목할 사실은 6개 행동 요인들에서의 행동의 발생 빈도가 시점에 따라서 달라짐으로써 행동요인과 시점요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점이다. 각 시점별로 6개 행동요인들의 상대적 발생률을 순위로 비교해 보면, 결합행동은 세 시점에서 발생률이 항상 가장 높았고, 분리 행동은 일관되게 5위의 낮은 발생 빈도를 보였다. 그러나 적대 행동은 우정 형성 후 1개월 경에는 6개 요인 가운데 4위였다가 7개월 및 14개월 후에는 발생 빈도의 순위가 가장 낮았다. 손 위 사람 행동도 1개월 경에는 발생 순위가 2위 였다가 7개월 및 14개월에서는 3위로 바뀌었다. 반면에, 손 아랫 사람 행동은 각각 위와 같은 시점에서 3위 였다가 2위로 발생 순위가 높았다. 한편 가장 빈도가 낮은 행동요인은 우정 형성 후 1개월째에는 애정행동이었고, 2, 3 시점에서는 적대행동이었다. 애정행동이 7개월 이후에는 중위권의 발생 빈도를 보이는 점을 참고로 한다면, 애정행동의 발생이 제 1 시점에서 낮았던 이유는 이 행동이 밀접한 대인관계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적대행동도 1개월 후에 비하면 7개월이나 14개월 경에 증가되지만 제 2 및 제 3 시점에서 6개 행동요인들 가운데 발생률이 가장 낮다. 이 역시 애정행동의 발생 빈도가 낮은 것과 같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시간 경과에 따라서 행동요인별 발생 순위가 달라지는 현상은 시사점이 크다. 이 현상은, 대인관계의 진전 시점에 따라서 매력, 행동, 태도, 인지 등 여러 단면의 상대적 영향력이 변화될 수 있다는 주장과 동일한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각 단면에서의 세부적 내용의 변화도 시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손 위 사람 행동 및 손 아랫 사람 행동요인에서도 흥미 있는 현상이 발견된다. 이 요인들은 발생 순위가 각각 2, 3 위로서 우정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발생 빈도를 보였다. 양극이 모두 높은 발생 빈도를 보이지만, 모든 시점에서나 전체적으로 이 양극의 행동 빈도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우정관계에서 손 위 사람 행동이나 손 아랫 사람 행동 요인 가운데 어느 행동이 더 많은 빈도를 보이지 않아서 우정관계가 동등한 관계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양극의 행동들이 모두 높은 발생 빈도를 보인 사실은 동등한 우정관계라고 하더라도 지배적이거나 복종적 의미를 지니는 행동의 발생이 억제됨을 뜻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상하관계를 뜻하는 행동들이 상호 빈번히 일어나고

교류되면서도 전체적으로 동등성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정 관계에서 두 사람간의 동등성이란 정태적이 아니라 역동적 특징을 지님을 의미한다.

또한, 우정관계가 형성된지 비교적 짧은 시간 후인 1개월째임에도 적대행동의 발생빈도가 동일한 행동차원의 반대 극인 애정행동보다 높았던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정이 형성되는 비교적 빠른 시점부터 부정적 행동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통념과 어긋난다. 필자(1985)의 선행연구에서는 시점에 따라서 부정적 행동이 증가하는 점과 이에 대한 가능한 이유에 관해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 부정적 행동의 성질이 우정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분리나 적대행동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설명됨을 볼 수 있다. 가장 친한 친구와의 우정 형성 후 1개월 경에 적대행동이 애정행동보다 우세한 점은 우정이 시발되는 더 초기 시점을 지나면서 우정의 유지를 위해서 부정적 행동을 억제하던 경향이 약화된 데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이 해석의 정당성은 친교 1개월 이전 시점에서의 행동적 변화를 연구함으로써 알아볼 수 있겠다.

이상의 논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3차원의 대인행동 모형에 의해서 우정의 형성과 진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행동적 사건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가려낼 수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러나 우정관계에 한정해서 행동적 사건의 의미를 더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의 연구가 요청된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여러 유형의 대인관계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행동적 사건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보편적인 행동들 이외에 우정관계에서만 특수하게 많이 발생하는 행동적 사건들을 첨가하여 우정관계에서의 행동차원을 알아낸다면 우정이라는 특수한 관계를 더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 둘째, 행동적 사건의 분석은 14개월에 걸쳐서 가장 좋아하는 친구와 교우가 계속됐던 성공적인 우정관계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처음 사귄 때 가장 좋아한 친구와 우정이 지속되지 못하고 다른 인물과 교우하는 사례들에서의 행동적 사건을 함께 분석하여 비교한다면 계속 진행되는 우정관계에서 발생하는 행동적 사건의 특징이 더 잘 부각될 수 있겠다.

참 고 문 헌

- 윤진(1984). 우정관계의 본질과 발달단계에 따른 변화. 사회심리학연구, 제 2권 제 1호, 94-113.
- 한덕웅(1985). 우정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종단적 연구. 사회심리학연구, 제 2권 제 2호, 169-191.
- 한덕웅·신철균(1983). 대인관계의 성질과 성역할에 따른 행동의 차이, 성균관대학교, 학생지도연구, 59-79.

- 한덕웅(1982). 대인관계의 행동적 구조 : 2인 관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논문집*, 제 32집, 143-180.
- 한덕웅(1980). 자기노출이 매력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논문집*, 제 30집, 109-137.
- 한덕웅(1978). 성격특성의 귀속체계와 대인관계가 매력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학위 청구논문*.
- Altman, I. (1975). *The environment and social behavior : Privacy, personal space, territoriality, and crowding*. Monterey, Calif.: Brooks-Cole.
- Altman, I. (1974). The communication of interpersonal attitudes: An ecological approach. In T. L. Huston (Ed.), *Foundations of interpersonal attraction*. N. Y.: Academic Press.
- Altman, I., & Haythorn, W. W. (1965). Interpersonal exchange in isolation, *sociometry*, 28, 411-426.
- Altman, I., & Taylor, D. A. (1973). *Social penetration*. N. Y.: Holt, Rinehart, & Winston.
- Altman, I., Vinsel, A. M., & Brown, B. B. (1981). Dialectic conceptions in social psychology : An application to social penetration and privacy regulation.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4. N. Y.: Academic Press.
- Berg, J. H., & McQuinn, R. D. (1986). Attraction and exchange in continuing and non-continuing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5), 942-952.
- Berg, J. H. (1984). Development of friendship between roomm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2), 346-356.
- Berscheid, E., & Walster, E. H. (1978). *Interpersonal attraction* (2nd ed.). Reading, Mass.: Addison-Wesley Publ. Co.
- Braiker, H. B., & Kelley, H. H. (1979). Conflict in the development of close relationships. In R. L. Burgess & T. L. Huston (Eds.), *Social exchange in developing relationships*. N. Y.: Academic Press.
- Burgess, R. L. & Huston, T. L. (Eds.) (1979). *Social exchange in developing relationships*. N. Y.: Academic Press.
- Byrne, D. (1971). *Attraction paradigm*. New York: Academic Press.
- Colsen, W. N. (1968). Self-disclosure as a function of social approval. Unpublished M. A. thesis. Howard University, Washington, D. C.
- Conover, W. J. (1971). *Practical nonparametric statistics*. New York: John Wiley & Sons.
- Cozby, P. C. (1973). Self-disclosure: A literatur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79(2), 73-91.
- Derlega, V. J. (Ed.) (1984). *Communication, intimacy, and close relationships*. N. Y.: Academic Press.
- Duck, S., & Gilmour, R. (1981). *Personal relationships*. 1: *Studying personal relationships*. London: Academic Press.
- Duck, S., & Gilmour, R. (1981). *Personal relationships*. 2: *Developing personal relationships*.

- ships. London: Academic Press.
- Duck, S. (Ed.) (1977). *Theory and practice in interpersonal attraction*. London: Academic Press.
- Eidelson, R. J. (1980). Interpersonal satisfaction and level of involvement: A curvilinear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460-470.
- Foa, U. G. (1964). Cross-cultural similarity and difference in interperso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8 (5), 517-522.
- Foa, U., & Foa, E. B. (1975). *Resource theory of social exchange*. Morristown, N. J.: General Learning Press.
- Frankfurt, L. P. (1965). The role of some individual and interpersonal factors in the acquaintance proc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D. C.
- Hays, R. B. (1985). A longitudinal study of friendship develop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4), 909-924.
- Hays, R. B. (1984). Th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friendship.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5-98.
- Huesmann, L. R., & Levinger, G. (1976). Incremental exchange theory: A formal model for progression in dyadic social interaction.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9. N. Y.: Academic Press.
- Huston, T. L. (1974). *Foundations of interpersonal attraction*. N. Y.: Academic Press.
- Huston, T. L., & Levinger, G. (1978). Interpersonal attraction and relationship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29, 115-156.
- Huston, T. L. & Robins, E. (1982).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studying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4), 901-925.
- Jourard, S. M. (1971). *Self-disclosure: An experimental analysis of the transparent self*. N. Y.: Wiley-Interscience.
- Jourard, S. M. (1964). *The transparent self*. Princeton, N. J.: Van Nostrand.
- Kelley, H. H. (1979). *Personal relationships : Their structures and processes*. N. 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
- Kelley, H. H., Bersheid, E., Christensen, A., Harvey, J. H., Huston, T. L., Levinger, G., McClintock, E., Peplau, G., & Peterson, D. R. (1983). *Close relationships*. N. Y. : Freeman & Co.
- Keppel, G. (1982). *Design and analysis* (2nd ed.). New Jersey: Prentice Hall.
- Levinger, G. (1983). Development and change. In H. H. Kelley, E. Berscheid, A. Christensen, J. Harvey, T. L. Huston, G. Levinger, E. McClintock, A. Peplau, and D. R. Peterson, *Close relationships*. San Francisco: Freeman.
- Levinger, G. (1980). Toward the analysis of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6, 510-544.
- Levinger, G. (1979). A social exchange view on the dissolution of pair relationships. In R. L. Burgess & T. L. Huston (Eds.), *Social exchange in developing relationships*. N. Y. : Academic Press.

- Levinger, G. (1974) A three-level approach to attraction : Toward an understanding of pair relatendness. In T. Huston (Ed.), *Foundations of interpersonal attraction*. N. Y.: Academic Press.
- Levinger, G., & Raush, H. (Eds.). (1977). *Close relationships: Perspective on the meaning of intimacy*. Amherst, Mas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 Levinger, G., & Snoek, J. D. (1972). *Attraction in relationship: A new look at interpersonal attraction*. N. Y. : General Learning Press.
- Longabaugh, R. (1966). The structure of interpersonal behavior. *Sociometry*, 26, 319-344.
- Murstein, B. I. (Ed.) (1971). *Theories of attraction and love*. New York : Springer Publications.
- Page, J. (1968). Social penetration process: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reward and cost factors on the stability of dyadic relationship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D. C.
- Rubin, Z. (1973). *Liking and Loving: An invitation to social psycholog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Schutz, W. C. (1958). *FIRO: A three-dimensional theory of interpersonal behavior*. N. Y. : Holt, Rinehart, and Winston.
- Taylor, D. A. (1968). Some aspects of the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ocial penetration processe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75, 79-90.
- Taylor, D. A., Altman, I., & Sorrentino, R. (1969). Interpersonal exchange as a function of rewards and costs and situational factors: Expectancy confirmation-disconfirm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5, 324-339.
- Triandis, H. C., Vassiliou, V., and Nassiakou, M. (1968). Three cross-cultural studies of subjective cul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Monograph Supplement*, 8(4), Part 2, 1-42.
- Wish, M., Deutsch, M., and Kaplan, S. J. (1976). Perceived dimensions of interpersonal rel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4), 409-420.

ABSTRACT

Changes in Behavioral Events During Friendship Formation and Development

Hahn, Duck-Woong

*Department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Sung Kyun Kwan University*

This article consists of two relatively independent parts: Firstly, a comprehensive methodolog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intimate relationships was proposed through a critical review of the theories and researches on relationship development. Secondly, an empirical analysis of behavioral events occurred in same-sex friendship development was performed during 14 months longitudinally.

Most theories and researches on relationship development have focused upon very restricted asp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It was strongly suggested in this paper, however, that seven asp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i.e., attraction to the partner, emotional experiences, attitudes toward important psychological objects, behavioral events, cognitions about the present and the future of the relationship, needs, and situational contexts, must be included for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development. We assumed that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ose aspects in understanding relationship development is determined by intimacy level and unique characteristics of dyad. The necessity of longitudinal approach to investigate both the interrelationships and the causal links among those aspects was also emphasised. The changes in interpersonal behavioral events, which actually occurred between the best friends during 14 months, were analyzed as a part of the empirical study dealing with the interrelationships among the important aspect of friendship development. 32 behavioral events among 70 behaviors significantly increased as the friendship progressed. Those 32 behavioral events were interpreted as good indices to discriminate the levels of relationship development. The findings also indicated that the association behaviors, characterized by precipitating interpersonal bondage between the friends, have occurred more frequently in the earlier period of friendship development than in the later period. In order to clarify the meanings of behavioral changes, three bipolar dimensional analysis of interpersonal behaviors (association — dissociation, love — hostility, and superordination — subordination) were

applied to the same behavioral data.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changes in behavioral event during friendship development were explained effectively in terms of the three dimensional model of interpersonal behavior.